

데이터통신을 중점 육성

삼익전자공업(주)

전 광판하면 삼익전자공업, 삼익전자공업하면 전광판을 연상할 정도로 이부문 국내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삼익전자공업(주)(대표:李載桓)은 사회의 정보화가 고도화돼 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데이터통신사업을 중점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모뎀시장이 아직 정착되기 전인 80년 삼익전자공업은

1200bps급 데이터모뎀을 최초로 국산화해 이미 이 부문의 선두주자로 나섰다. 그런데 바덴바덴에서 우리나라가 88년 올림픽개최국으로 결정되고 정부의 체육진흥정책으로 경기장 전광판 수요가 급증하는데다가 증권시황시세판 공급요청이 늘어나자 삼익전자공업은 이 부문에 만도 일손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삼익전자공업이 경기장 전광판, 증권시황시세판 분야에서 독점하다시피 국내시장을 석권해 나가는 사이 모뎀시장에 콤팩트, 데이터콤 등 신규모뎀업체가 등장, 앞서나가기 시작하자 삼익전자공업은 선발주자로 나서기 위해 86년부터 모뎀에 社力を 쏟기 시작했다.

87년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한국전기통신공사, 데이콤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 제품개발과 품질향상에 주력, 1200, 2400, 4800, 9600bps급 데이터모뎀 단독 4개와 집합 4개 품목에 형식승인을 획득했다.

현재 형식승인 11개 품목, 비승인 품목을 포함해 총19개종을 생산하고 있는 삼익전자공

▼ 삼익전자공업이 야구경기장에 설치한 전광판시스템



업은 이달 초에 300, 1200, 2400 bps급 다이얼업 모델에 형식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업체로는 아직승인받지 않은 4800, 9600bps급 다이얼업 모델에 대한 형식승인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사업역점을 위해 이미 지난 3월 세계 다이얼업 모델의 선두주자인 미국 마이크로 콤파스와 국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마이크로컴의 9600, 19200bps급의 V-32C와 9624C의 형식승인도 추진하고 있다.

69년 설립이후 20여년 동안 안정기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지속성장을 해온 삼익전자공업을 현재 350여명의 임직원이 상호인화를 바탕으로 데이터통신장비,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 전광표시기, 경기용 스코어보드, 주차관리시스템, 교통안내표시시스템 지하철 및 공항여객 안내표시기, SINEX시스템등을 생산하고 있다.

설립이후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온 삼익전자공업은 지난 70년 3월 일본의 코로나(CORONA)전자와 전자계산기, 정밀측정기, 정밀기계제작부문에 기술 제휴를 시발로 기술의 고도화에 힘써왔다.

올해 110억원의 매출계획을 세우고 있는 삼익전자공업은 89년을 데이터통신사업의 도약기로 삼고 기기개발의 불을 밝히고 있어 좋은 결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뷰

鄭邦雄 이사

기술개발력을 강화



『기업은 사회변화의 조류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사회의 고도화로 정보통신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산업전반에 걸쳐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흐름에 발맞춰 데이터통신을 중점육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주력업종인 전광판도 선두를 고수해나가며 모델을 국내최초로 개발했던 심정으로 투자를 늘려 2~3년 후에는 선두로 나서겠다고 鄭邦雄이사는 각오를 다진다.

설립된지 20년동안 안정속성 성장을 추구하다보니 회사가 보수적이라는 평도 들으나 이러한 바탕위에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진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수있는 분위기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한다고 鄭이사

는 말한다.

직원간의 인화는 어떤 직종의 기업이든 먼저 고려할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업무 추진방향을 자율적인 바탕위에 둔다고 밝히는 鄭이사는 삼익전자공업인이면 스스로 일을 찾아 해결한다며 직원들의 복무자세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산업전반이 시장개방에 관심이 쏠려있는 것을 반영하듯 삼익전자공업도 이에 대비해 간다는 鄭이사는 시장여건의 변화에 대비해 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미국의 개방압력에 의해 국내통신시장이 개방됐을 때 데이터통신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기술개발력을 향상시켜 시장수요에 맞는 기기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